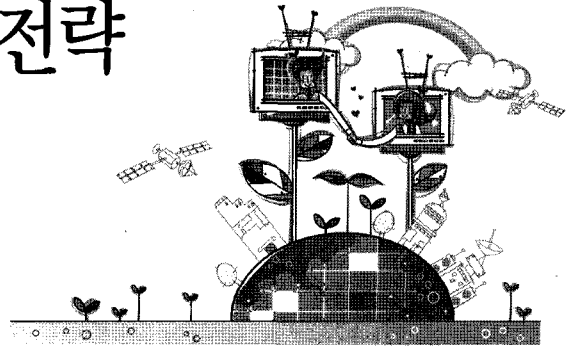


중국의 도시화전략



세계 최대시장이자 생산기지인 중국의 사회변화는 우리나라의 수출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양국간 무역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중국의 도시화 및 도시군전략을 인용한다.

중국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상주인구수가 2만 명 이상일 경우 도시(중국어로 성시)로 분류된다. 상주인구가 10만명 이하는 소도시, 10~50만명은 중등도시, 50~100만명은 대도시, 100만명 이상은 특대도시로 구분된다. 2천명 이상 2만명 이하이고 그 중 비농업인구가 50%를 초과하면 집진으로 분류된다. 집진이란 농촌과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주민 거주지를 의미한다.

중국의 도시화란 위에서 규정된 소도시 이상의 도시의 수와 도시상주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며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중국 특유의 도시군이 형성되고 있다.

도시군이란 공간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분포하고 있는 도시집합체를 의미한다. 서로 다른 규모와 유형의 여러 도시들이 하나 또는 수개의 특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체계를 형성하여 일정한 자연환경과 교통조건을 기초로 도시간의 내재적 연계를 강화하면서 도시간 네트워크를 발전시킨다.

중국 도시화 발전의 5단계는 제1단계가 도시화 초보단계로 1949년부터 1957년까지이다. 2단계는 1958년부터 1965년까지, 3단계는 1966년부터 1978년까지, 4단계는 1979년부터 1991년까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단계이다. 5단계는 안정적인 도시화 발전 및 도시화에 대한 인식 전환단계로 1992년부터 2008년이다.

도시화 수준은 제1단계 경우 도시수 176개 도시인구수 7천만명, 도시화율 10.9%였다. 제4단계는 도시수 470개, 도시인구수 3억12백만명, 도시화율 26.9%이고, 5단계는 도시수 655개, 도시화율 45.7%이다.

2007년 대도시의 경우 5백만 이상이 도시수 8개 도시인구 84백만명이고, 2백~5백만명은

도시수 23개, 도시인구 66백만명이며, 1백만~2백만명은 도시수 32개 도시인구 45백만명, 5십~1백만명은 도시수 91개 도시인구 64백만명이다. 중등도시인 2십~5십만명은 도시수 245개 75백만명이다. 소도시까지 포함된 도시인구는 3억7천만명에 도시수 655개이다.

200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 16차 대회에서 점진적으로 도시화 수준을 향상시키며 대중소도시와 소성진의 협력 발전을 견지하고 중국 특색의 도시화 전략을 실시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도시화가 경제성장의 결과라는 인식하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베이징텐진탕산 등 3대 도시군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현재는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궈기 등의 지역개발정책의 실시로 인해 중부지구와 동북지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군이 형성되고 있다.

도시화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인 도시화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충분한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토지 에너지 물 및 환경자원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압박을 초래한다. 2007년 개최된 제 17기 중국 공산당 중앙회의에서 경작지의 감소, 대기 및 수질오염, 소득격차 심화문제를 제기하였다. 지니계수가 1985년의 13%에서 2005년 31%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도시실업률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중국도시군의 문제점으로 도시군의 경제총량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

고 전체적인 발전이 불충분하다. 세계은행의 22003년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3대 도시군의 GDP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 일본의 3대 도시군의 GDP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이나, 중국 3대 도시군의 2007년도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불과하다.

도시군 체계 중 최상위 도시의 공헌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핵심 도시의 능력이 부족하다. 중국 특대도시들의 인구 규모와 지역공간 구조가 발전국가의 최상위 도시와 유사하지만 경제구조의 수준과 전체적인 추진능력 및 이윤 창출능력이 매우 낮다.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위한 중국의 도시화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인민대학 거시경제연구팀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은 현재의 고속성장 시기가 끝나고 장기간 차기 고속성장 시기를 맞게 될 것이므로 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원천 중의 하나로 적극적이며 차별하게 도시화를 추진할 것을 제시한다.

도시화는 미래 중국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원천으로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구조를 개선하며 제 3차 산업의 발전과 국내 유효수요를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도시화는 장래에 부동산 투자규모를 급속한 성장을 가져오며 경제성장 속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은 1982년 전국도시계획회의에서 대도시 규모를 억제하고 중등도시를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며 소성진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도시화 전략을 결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이후 독일식의

분산식 도시화 전략 대신 한국, 일본식의 집중형 도시화 전략을 선택하였다.

맥킨지 보고서는 4개의 도시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향후 2025년의 중국 도시화 수준을 예측하였다. 현재처럼 도시화가 지속된다면 2025년까지 3억5천만명의 도시인구가 새로 증가하여 약 10억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새로 증가한 3.5억명의 도시인구 중 2.4억명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인구로 도시이주 현상이 도시화 촉진의 확실한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백만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수가 221개가 되며, 이중 23개는 5백만 이상의 인구 규모를 갖춘 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총 소비규모가 두 배로 늘어나고 가처분소득 역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대규모 글로벌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도시군 발전전략의 전체 구상에 의하면, 연해지역, 하천 및 주요 교통간선을 따라 24개의 도시군을 주체로 하는 도시체계를 건립한다. 이렇게 될 경우 24개 도시군의 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의 20%를 차지하며, 인구 규모는 전국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그중 20개 도시군의 인구규모가 천만명을 초과하여 미래의 중점적인 발전구역이 될 것이다.

3대 도시군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대도시구 공간구조를 만든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중소도시 협력 발전을 추진한다. 도시군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도시군의 계획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부서와 구역을 연계한 계획협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여러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군 계획을 지도하고 관련 정부를 지원한다.

